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

정부 및 민간 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

2022 년 02 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김 해 니

정부 및 민간 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수 영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 년 9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김 해 니

김해니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 년 12 월

위 원 장 김 병 조 (인)

부위원장 박 정 훈 (인)

위 원 이 수 영 (인)

국문초록

사회적기업은 자본주의 체제 질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지와 연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 및 민간지원금과 지역 내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 및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성과 사이의 관계에 지역 내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조절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20년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자료와 2018-2020년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 및 민간지원금이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낮아진 반면 경제적 성과는 높아졌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정부 및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성과 사이에서 대체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절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 및 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때 지역 내 사회적 자본은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여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첫째, 정부 및 민간의 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양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육성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 내 사회적자본 등 환경적 요소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셋째, 사회적 자본을 네트워크, 신뢰, 규범의 세 가지 지표로 분류하고 통계청의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사회적 자본을 직접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사회적기업,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정부 지원, 민간 지원, 사회적 자본
학 번 : 2018-26016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 5
제 1 절 사회적기업 ····· 5
1. 사회적기업의 개념 ····· 5
2. 사회적기업의 현황 ····· 8
제 2 절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지원금 ····· 12
1. 사회적기업의 성과 측정 ····· 12
2. 사회적기업 정부·민간지원금 ····· 14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한계 ····· 18
제 3 절 사회적 자본 ····· 24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 24
2. 사회적 자본의 측정 ····· 26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한계 ····· 29

제 3 장 연구설계 ····· 34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 34
1. 연구 모형 ····· 34
2. 연구 문제 및 가설 설정 ····· 35

제 2 절 자료 수집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 40
1. 독립변수 : 정부·민간지원금 ····· 40
2. 종속변수 : 사회적기업의 성과 ····· 42
3. 조절변수 : 사회적 자본 ····· 43
4. 통제변수 : 기업 단위 및 지역 단위 ····· 46
제 3 절 분석방법 ····· 49

제 4 장 실증분석 ····· 52
제 1 절 기초통계량 및 상관분석 ····· 52
제 2 절 회귀분석 ····· 57
1. 회귀분석 결과 ····· 57
2. 가설 검증 ····· 69

제 5 장 결 론 ····· 78
제 1 절 연구의 요약 ····· 78
제 2 절 연구의 함의 ····· 81
제 3 절 연구의 한계 ····· 83

참고문헌 ····· 85
Abstract ····· 94

표 목 차

[표 1] 사회적기업 연도별 현황 ····· 9

[표 2]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현황 ····· 10

[표 3] 지역별 현황 ····· 10

[표 4] 조직 형태별 현황 ····· 11

[표 5]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분야 ····· 11

[표 6] 사회적기업 성과 측정지표 ····· 13

[표 7] 사회적 자본의 개념 ····· 26

[표 8] 지역별 사회적기업 수 ····· 40

[표 9] 2020 자율경영공시 사회적기업 데이터 수 ····· 41

[표 10] 정부 및 민간지원금 ····· 42

[표 11] 사회적기업의 성과 측정 지표 ····· 43

[표 12]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 ····· 45

[표 13] 통제변수 ····· 47

[표 14] 인증유형 범주 및 코드 ····· 47

[표 15] 주업종 범주 및 코드 ····· 48

[표 16]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상관분석 ····· 52

[표 17] 주요변수 상관분석 ····· 55

[표 18] 조절변수 상관분석 ····· 57

[표 19] 회귀분석 결과 (가설 1, 2) ····· 58

[표 20] 회귀분석 결과 (가설 3-1) ····· 60

[표 21] 회귀분석 결과 (가설 3-2) ····· 61

[표 22] 회귀분석 결과 (가설 3-3) ····· 63

[표 23] 회귀분석 결과 (가설 4-1) ····· 65

[표 24] 회귀분석 결과 (가설 4-2) ····· 66

[표 25] 회귀분석 결과 (가설 4-3) ····· 68

[표 26] 가설검증 결과 ····· 77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 35

[그림 2] 조절변수 기초통계량 ····· 5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는 자본주의 체제 질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개념으로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지향하는 경제체제이다.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현대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가운데, 사회적 경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일환인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 붐이 일어난 이래로 양적 성장은 이룩하였으나 신생 사회적기업만큼 사라지는 사회적기업의 수 역시 많다. 2020년 12월 기준 3,294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나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은 2,777개에 불과해(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약 84.3%의 인증 사회적기업만이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질적인 공고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자본주의 경쟁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를 시정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기능하게 될 사회적 경제는 아직 과도기적 과정에 있다. 그렇기에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견인하는 요인 역시 탐색적 단계에 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은 정부와 시민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촉진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사회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생존과 직결

되는 요소이다. 나아가 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지지와 연대가 필수적이다.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양방향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동의와 지원을 형성함으로써 조직의 성과와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박현희・심동철, 2017).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성과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상호작용하는 역학관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지역 주민과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신뢰를 축적하여 생존 역량을 강화해 가야 한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성화는 본질적으로 그 사회가 축적해 놓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도수관, 2021) 사회적 자본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촉진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한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정도를 탐구하고 그 개선책을 도모하거나, 최대 유사 체계적 관점에서 몇몇 사례를 비교하여 사회적기업 성공을 위한 유의미한 요소를 찾고자 시도해왔다. 혹은 여러 지역에 걸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정부·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상호작용하는 역학관계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촉진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정부·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성과 사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구분에 따라 사회적 자본을 파악한 후, 정부·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성과 사이에서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를 시도한다. 사회적 자본의 축

적 정도를 측정하고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계량화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견인하는 요인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및 민간의 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이전의 연구들은 주로 정부지원금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지원금을 정부 및 민간 차원으로 구분하고, 성과를 사회적, 경제적 성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지원금이 사회적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향후 정책 및 협업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이전까지의 연구들은 사회적기업의 조직 내부와 외부 요인으로 나누어 사회적기업의 성과 요인을 살펴보고 있다. 조직의 특성 및 문화, 경영인의 역량에 초점을 맞추거나 정부 정책, 행정조직, 재정적 지원을 다룬 대한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지역별 사회적 자본의 축적 정도가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이 정부 및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성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면 추후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지역별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함으로써 지역별 사

회적 자본의 수준과 사회적기업의 성과 수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국가 단위에 초점을 맞춰 지자체별 차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 이후 2018년 「제 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중앙정부는 다방면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방마다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양상은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통계를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의 지역별 차이를 파악할 것이다. 이는 특정 지역에 치중된 기존 연구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차별성을 갖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공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 및 민간지원금을 측정하고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파악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항목을 고려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사회적기업의 성과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견인하는 요인과 관련된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재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공식적 지표의 한계를 밝히고,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 제2장에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연구설계와 연구 모형을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함의, 한계를 논의하도록 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절 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의 개념

공공문제의 해결을 정부가 독점하는 전통적 거버넌스의 방식이 비판을 받기 시작하면서 신행정국가가 대두하였다. 신행정국가에서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공동체가 연결망을 이루어 협력하는 신거버넌스 행정체제의 특징을 지닌다. 이에 따라 준(비)정부기구(Quasi-(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NGO와 함께 사회적기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사회적기업은 공공기관이나 영리기업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수익 창출을 배제하지 않으나 수익의 승자독식이 아닌 공평 배분을 실천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 2조)으로 정의한다. 사회적기업에 관한 보편적인 정의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특징으로 ①경제활동 수행, ②사회적 목표 성취가 주요 목적, ③구성원의 다양성과 적극적 참여, ④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원칙을 들 수 있다(박현희・박은영, 2017)

노대명(2009)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 국가와 시장에 기반을 둔 매개적이고 혼합적인 영역으로 제시한다. 사회적 경제는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200여 년 동안 사용하였던 개념으로 사회적기업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해 왔다.(송태수, 2012) 유럽 및 북미에서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발전해온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는 사회 양극화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정부 주도로 도입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복지축소의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이 발달한 반면, 한국은 IMF 경제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을 배경으로 실업에 대한 대책과 복지확장의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이 출현하고 발달하였다.(김혜원, 2009)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경제 육성의 일환으로 등장한 개념으로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 창출 정책을 기반으로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장원봉, 2009) 즉,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구현하는 것이다.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극대화하기보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이를 위해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이윤을 다시 투자한다. 사회적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점에서는 일반 기업의 특성을 지니지만, 공공성을 함께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영리성과 공공성을 동일한 수준으로 추구하지는 않으며,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성보다 공공성에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용노동부 인증 업무지침)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자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건강한 사회생태계를 위한 협력적 아이디어가 실험되고 있다.(미우라 히로키・한주희 2013.) 사회적 경제는 19세기 후반 샤롤 지드가 시장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시장이 경제를 이끄는 반면, 통제경제(regulated market economy)에서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한다. 이때 사회적 경제

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경제 부문에 개입하며 등장하였다. 즉, 사회적 경제는 국가의 무능력과 시장의 역효과에 대한 대응으로서 시민사회가 주체가 된 대안이다. 비국가 영역으로서 국가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는 동시에 비시장 영역으로서 전통적인 시장기능 역시 일부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개념인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공급자 중심의 복지 기능과 역할을 시민사회의 주도로 수행함으로써 이해당사자 중심의 복지체계를 이루게 된다. 사회적 경제를 실행하는 영역으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대표적이다.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는 사회적 경제라는 지구적 프레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역사회를 통합한다. 사회적 투자의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켜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일으킨다. 사회적기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착한 소비문화 또한 조성한다.(엄형식, 2010.)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한계 역시 존재한다. 사회적기업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공고화를 이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취업을 도모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끊기면 생존 능력을 잃어버리기 쉬워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은 정부 주도의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그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시장 논리에 굴복하여 영리화의 길로 나아가기 쉬운 한계를 보인다.

그 본래 설립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방향으로 적절한 관리 감독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사회적기업 자체의 노력은 필수적이다. 사회적기업 자신의 역능을

강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는 밑으로부터의 시민참여를 근간으로 한다.(임현진 2012.) 사회적 책임을 기업만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인 시민 스스로가 '구매 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기업 자체의 조직이나 리더십을 넘어 사회적 자본의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시민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여 사회적기업의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기업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시기 실업 문제와과 빈곤을 극복하고자 출발하였다. 정부는 2006년 말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조) 2020년 12월 기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3,294여 곳이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곳은 2,984개 이상이다. 사회적기업 근로자는 54,659명에 달하며, 이 중 취약계층 근로자는 33,123명(60.6%)에 달한다(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표 1> 사회적기업 연도별 현황

연도	신청	인증	현재 유지
계	5,054	3,294	2,777
′07	166	55	35
′08	285	166	103
′09	199	77	54
′10	408	216	133
′11	224	155	104
′12	317	142	114
′13	469	269	199
′14	481	265	203
′15	427	295	235
′16	326	265	236
′17	306	256	245
′18	372	312	299
′19	555	392	388
′20	519	429	429

(출처 : 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 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으로 다양한 범위에서 인정된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의 5개로 분류한다. 노동통합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최근 들어 사회혁신, 지역 재생, 협동조합 등으로 분야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이인재, 2012.)

<표 2>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현황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1834(66.1%)	176(6.3%)	212(7.6%)	201(7.2%)	354(12.8%)

(출처 : 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사회적기업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서울 및 경기 지역에 1000여 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표 3> 지역별 현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사회적 기업	518 (18.7%)	137 (4.9%)	98 (3.5%)	173 (6.2%)	126 (4.5%)	100 (3.6%)	480 (17.3%)	153 (5.5%)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78 (2.8%)	114 (4.1%)	110 (4.0%)	155 (5.6%)	154 (5.5%)	174 (6.3%)	128 (4.6%)	63 (2.3%)	16 (0.6%)

(출처 : 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와 영리 조직으로 조직 형태를 구분할 수 있으며 영리 조직이 78.2%로 대부분의 조직이 영리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영리 형태 중에서도 상법상 회사의 유형이 가장 많은 61.9%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민법상 법인, 협동조합의 형태가 뒤를 이어 차지하고 있다.

<표 4> 조직 형태별 현황

비영리 605개소 (21.8%)					영리 2,172개소 (78.2%)			
민법상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기타법인 및 단체	상법상 회사	농(어)업 회사법인	영농(어) 조합법인	협동 조합
286 (10.3%)	70 (2.5%)	76 (2.7%)	171 (6.2%)	2 (0.1%)	1718 (61.9%)	115 (4.1%)	101 (3.6%)	238 (8.6%)

(출처 : 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는 매우 다양하여 기타로 분류되는 분야가 가장 많은 5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활동 분야가 한정되지 않고 다방면으로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 있음을 보여준다. 기타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문화, 예술 분야였으며 청소 업종이 뒤를 이었다.

<표 5>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분야

문화, 예술	청소	교육	사회 복지	환경	간병, 가사 지원	관광, 운동
275 (9.9%)	252 (9.1%)	247 (8.9%)	126 (4.5%)	122 (4.4%)	98 (3.5%)	68 (2.4%)

보건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문화재	고용	기타
17 (1.6%)	16 (0.6%)	13 (0.5%)	10 (0.4%)	10 (0.4%)	1,523 (54.8%)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제 2 절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지원금

1. 사회적기업의 성과 측정

사회적기업의 성과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측정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 영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사회적기업의 설립 근간이 되는 사회적 목적의 달성은 사회적기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확인하는 핵심 차원이다.(함창모 외, 2016)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약자의 고용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함창모 외 2016) 사회적 성과는 조직의 사회적 목적과 잠재 가치를 나타내는 요소로서 경제적 성과만으로 왜곡되기 쉬운 성과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김기현, 2013)

반면 사회적기업이 수익 창출을 등한시하고 사회적 가치만을 추구한다면 사회적기업 조직의 지속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필요한 재정을 외부에 의존하게 되어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달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김재홍・이재기, 2012) 따라서 일반 기업과 같이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와 함께, 사회적 성과까지 함께 측정할 때 진정한 성과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사회적 성과 지표(SVI, Social Value Index)를 통해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라는 3가지 관점에 따라 14개 지표로 매뉴얼화하였다.(<표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SVI는 조직 미션, 사업 활동, 조직 운영의 측면에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 성과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며 기업 혁신 지표로 혁신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표 6> 사회적기업 성과 측정지표

관 점	범주	영 역	측정지표	배점
사회적 성과 (60)	조직 미션 (7)	사회적 미션 (7)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2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여부	5
	사업 활동 (35)	주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15)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비계량 지표)	15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10)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5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5
		사회적 목적 재투자 (10)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비계량 지표)	10
	조직 운영 (18)	운영의 민주성 (5)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
		근로자 지향성 (13)	8. 근로자 임금수준	8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5
경제적 성과 (30)	재정 성과 (30)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25)	10. 고용성과	10
			11. 매출성과	10
			12. 영업성과	5
		노동성과 (5)	13. 노동생산성	5
혁신 성과 (10)	기업 혁신 (10)	기업 활동의 혁신성 (10)	14. 혁신노력도 (비계량 지표)	10
계		14개 지표		100

(출처 : 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분석한 기존 논문들 역시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구분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 지표 구성에 있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장성희·반성식(2010)은 지역 주민, 근무 자부심, 지역 환경, 공익사업, 사회 안정화의 측면에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 매출액, 순이익, 자본대비 수익증가율, 현금흐름의 측면에서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였다. 하지만 다음 해 반성식 외(2011)는 일자리 창출 기여도, 지역공동체 기여도, 사회서비스 제공 기여도, 장애인·저소득층 기여도, 지역 인지도 등의 5개 요소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였다. 정경헌(2021)은 사회적 성과는 소외계층, 사회서비스 제공계층, 지역사회 재투자계층의 고용으로 정의하였고, 경제적 성과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정의하였다.

김숙연(2015)은 사회적 성과를 지역사회공헌,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3가지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김기철·서병덕(2017)은 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3개 요소를 활용한 사회적 성과 측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강문실·김윤숙(2016)은 기업의 매출액 증가, 경영자립도 향상, 고객 만족 증가, 자원개발 목표 달성, 예산 효율성, 시설투자 증가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였다. 이수창·정우열(2014)은 영업이익 단일 수치를 활용하여 재무적 성과를 설정하였다.

2. 사회적기업 정부·민간 지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및 민간 지원 사업은 다채롭게 진행 중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매우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단체 계약, 프로젝트 보조금 지급, 조합원들에 대한 사회보장료 면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세제 지원 정책과 재정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김정원, 2009) 또한 창업 자금지원 및 은행 저금리 대출 등 자금 지원 정책 역시 수행하고 있다.(OECD, 2006)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1)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시행되는 구체적인 정부 및 민간 지원 사업 종류와 현황을 살펴본다.

먼저 정부 지원 중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수익 구조를 창출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각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 주체의 견실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후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돕기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이다. 전략기획,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을 고용할 경우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월 200만 원(또는 250만 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연도별로 차등을 두어 일정 부분은 기업이 부담한다.

셋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한다. 브랜드 및·기술개발을 위한 R&D 비용, 시장 진입 및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 개선 비용 등 경상적인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회적기업은 연 1억 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5천만 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다. 사회적기업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일부를 4년간 지원한다. 사회보험료는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특별한 심사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섯째, 경영 컨설팅 지원이 있다. 사회적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회계, 시장개척, 홍보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경영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컨설팅 수행계획서의 "목적 및 추진 의지, 수행방안,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선별 지원을 받는다.

여섯째,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감면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향후 2년간 50%를 감면하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50%를, 재산세는 25%를 감면한다.

일곱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한 정책이다.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 중 사회적기업의 상품을 먼저 구매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높여주는데 목적이 있다.

여덟째, 판로지원을 수행한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판로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유통채널에 입점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있다. '상품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상품의 진단과 개선을 지원하고 '대형 유통채널 진출 지원'을 통해 TV홈쇼핑이나 백화점 및 온라인 유

통채널에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국 88개('20년 12월 기준)의 오프라인 사회적기업 제품 공동판매장(스토어 36.5)도 운영된다.

아홉째, 금융지원 정책이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주요 정책자금으로 미소금융(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회적기업 나눔보증(신용보증기금), 사회적 경제 기업 특례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사회적 경제 기업 크라우드펀딩이 운영되고 있다.

열째, 융자 지원이 있다.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융자는 중소기업정책자금, 미소금융 등 타 부처의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한다.

민간 지원 역시 다방면으로 존재하며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LG소셜캠퍼스가 있다. LG전자와 LG화학은 금융, 공간, 성장, 인재 육성 등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다. 먼저 혁신적이고 공익적인 친환경 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한다. 최대 5,000만 원, 대출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사업 안정화를 위해 공간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인재 육성을 돕는다. 특히 사업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성장지원 사업 역시 진행하고 있다.

둘째, KDB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있다. '고용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 목적의 7개 내외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선발한다. 활동기간 동안 최대 3,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와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 멘토링과 네트워킹 등 사후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셋째, 사회성과인센티브(SPC;Social Progress Credit)가 있다. SK·사회적 가치 연구원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혁신 동기를 유발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지원과 생태계 활성화를 이루고자 목적이 있다. 명확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정확한 미션을 갖고 성장·확장 가능한 해결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한계

사회적기업의 성과 요인을 추적한 논문 중 먼저 사회적기업의 내부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본 연구들이 있다. 김진경・한형서・최영근(2018)은 기업 역량과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영특성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광우・권주형(2009)과 장성희・반성식(2010)은 경영자의 경영전략과 역량을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분석하였다. 조상미 외(2012), 김숙연・김선구(2016), 홍효석・김예경(2016)은 사회적기업의 조직 특성과 문화를 분석하였으며 전현수・최균(2020)은 조직역량이 사회서비스 업종 사회적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성과요인인지 밝히고,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정선희・조상미(2018)는 사회적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립 태생', '목적', '소유권' 등 하이브리드 요인을 도출하고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특성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 도수관・박경하(2014), 김보라(2015), 최지혜・이찬영(2019)은 공공부문의 재정 지원이 사회적기업의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영욱 외(2012), 박현희・박은영(2017), 권소일・이재희(2018)는 주변 환경과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최현옥(2018)은 충북지역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및 지역사회 지원을 조사하고 종사자 경영 참여와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 및 사회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박수경・장동현(2013)은 정부의 중간조직, 전담부서 등 지원체계를 요인으로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정부 또는 외부의 재정 지원을 성과의 원인으로 분석한 논문이 다수 있다. 김재홍・이재기(2012)는 사회적기업 성과 측정을 위한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개별 기업의 특성과 외부지원금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김숙연・강수진(2017)은 2015년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지원금이 사회적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취약계층고용비율을 종속변수, 정부지원금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강석민(2014)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율경영공시 76개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이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황춘환・조창현・최무현(2014), 이영수・길현종(2016), 함창모・김학실・심준섭(2016), 황정윤・장용석(2017)은 정부 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명일, 양난주(2019)는 2017년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정희수・조상미(2021)는 여러 연구를 종합하여 메타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과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의 효과 크기를 조사하여 실증결과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 및 민간 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논문을 살펴보면, 강석민(2014)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자율경영공시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이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정부 지원을 전문인력과 사업개발비 부문의 합계로 측정한 결과, 정부 지원은 일정 정도까지는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이상에서는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헌(2021)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정부 지원, 민간 지원, 재정 지원으로 구분하여 자금지원방식에 따라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20년 사회적기업 자기관리공시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금지원방식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재홍・이재기(2012)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성과지표 결정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정부지원금은 경제적 성과(EROI)에는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반면,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은 사회적 수익률(SROI)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재홍・이재기(2012)는 또한 다른 논문에서 회귀분석을 통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사회적기업 고용의 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전체적인 총 유급 근로자를 창출하는 효과는 크지만 단위 지원금 당 고용창출 효과는 다른 지원기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호영・이장희・이상철(2020)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사회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한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부지원금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

김영규・김종일(2018)은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자리 지원금과 사회보험료지원금이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권상집・박은일・김희태(2013)는 고용창출에 관해 사회적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지원금은 사회적기업의 신규 근로자 및 취약계층 고용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금은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주어 매출 증가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황정윤・장용석(2017)은 정부지원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세한 사회적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은 사회적 성과만을 높였다. 반면, 이미 자립 기반이 수립되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은 경제적 성과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구환・이원경(2019)은 사회적기업 유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하였다. 그 중 정부의 지원금은 제조업 및 복지형 사회적기업의 유형에만 경제적 성과에서 정(+)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지원금의 경우는 제조업 및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에서 경제적 성과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타형은 민간지원금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모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현회・최유진(2021)은 정부지원금과 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자율경영공시 참여 사회적기업의 201-2019년 성과 및 경영정보를 추적하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패널고정효과모형 분석을 하였다. 영리기업에서 정부지원금은

취약계층 고용을 증가시키지만, 당기순이익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지원의 경우에도 영리기업의 경우 민간 지원은 사회적 성과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매출액을 통해 사회적 성과를 증가시킴을 보였다. 비영리기업에서 민간 지원은 경제적 성과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사회 재투자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명일・양난주(2019)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재정 지원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원의존이론을 적용하여 재정지원을 독립변수, 경제적 성과로 매출과 순수익, 사회적 성과로 취약계층 고용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지원과 매출, 순수익, 취약계층 고용 간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지원금은 순수익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을 하였다.

김형돈(2019)은 정부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때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을 통해 출판된 모든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지원과 민간지원은 경제적 성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연구에서 부의(-) 영향을 보고하였다. 반면 정부지원은 사회적 성과를 개선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민간지원은 기업후원이 총 유급근로자, 취약계층 근로자, 일자리 사업 고용, 자체고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기부는 일자리 사업 고용만 증가키고 총 유급근로자와 취약계층 근로자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부분의 연구가 사회적기업의 내부 특성에 초점을 맞추거나 외부 특성에 집중하여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때 사회적기업의 외부 특성을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정부의 지원 등 정부와의 관계를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정부 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생존에 중

심적인 요소임을 알려준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양(+)의 관계를 보고한 논문과 음(-)의 관계를 보고한 논문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정부 및 민간 지원이 사회적기업에 단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오히려 지원금이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인들이 개입함으로써 서로 다른 효과를 나타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 및 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한 인과관계로 파악하기보다, 그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는 조절변인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이때 직접적 독립변수인 정부 및 민간지원금이 종속변수에 작동하는 기제 속에서 조절변수로서 환경적 요소인 사회적 자본을 유의한 요인으로 꼽아볼 수 있다. 개별 사회적기업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따라 정부 및 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이라는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정부 및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성과 사이의 역학관계를 파악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존재하나(박은영, 2018)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행해져 전국 규모의 계량적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 기업에 대한 설문지를 통해 분석한 연구도 있으나(이준희, 2016) 공인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차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살펴보고, 정부 및 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사회적 자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탐구한다.

제 3절 사회적 자본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형성된 자본으로 행위자의 연결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산이며, 소속된 집단이나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접근으로 간주된다.(난린, 2008) 최영출(2004)은 사회적 자본을 다차원적 가치로 파악하며 일정한 공간 내 사람들의 공유된 이익을 위한 협력과 조정 요소라고 하였다. 박희봉・김명환(2000)은 사회적 자본을 지역에서 인간의 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보아 개인과 사회의 활동 및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다. 사회적 자본에 대해 최초의 이론 체계를 구축한 Coleman(1988)은 “사회의 구조를 구성하고 그러한 구조 안에서 개인과 조직의 행동을 쉽게 만드는 구성요소”를 사회적 자본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기대감, 규범, 의무, 신뢰 등을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파악한다. 그는 사회적 자본의 예시로 의무와 기대, 효과적인 제재, 정보 채널과 규범, 사회조직 및 그에 따른 부산물, 권한 관계 등을 제시했다(김우철, 2014)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원들 사이 관계를 부분적으로 제도화한 네트워크적 자원”이라고 정의한다. 네트워크에 속한 개인들이 소유한 실제적 혹은 잠재적 자원의 양과 네트워크의 규모에 의해 사회적 자본이 좌우된다고 보았다. Fukuyama(2000)는 “신뢰가 사회에 널리 퍼짐으로써 생기는 능력”으로 사회적 자본을 정의한다.

Inkpen & Tsang(2005)은 사회적 자본을 ‘네트워크 내 개인 또는 조직이 보유한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그 관계 안에 존재하는 자원들의 총합’으로 정의하였다. Baker(2000)는 ‘개인적 혹은 사업상의

네트워크로부터 얻어지는 자원'으로 사회적 자본을 바라보았으며 정보, 아이디어, 타인에의 영향력, 선의, 신뢰, 협력 등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들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신뢰에 기반한 네트워크에 의해 형성되며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준다고 보고 있다.(이윤경, 2009)

Putnam(1993)이 제시한 사회적 자본이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에 사용되는 인적 자산인 인적 자본이나 재화나 용역의 생산에 사용되는 물적 자산인 물적 자본과는 달리 '사람들의 신뢰 관계'에 내재한 개념이다. 즉, 인간관계 내에 존재하는 신뢰성, 호혜적 협력, 네트워크'를 의미한다.(김준환, 2004) Putnam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다른 시민들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비용을 줄여주고 협력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본다. 특히 네트워크는 개인들 간의 대면적이고 자발적인 결사체로 대표되며, 이러한 네트워크들이 신뢰와 규범의 시민참여의 역량을 증진시킨다.(김대석, 2013) Putnam(1995)은 지역사회 특성을 사회적 자본이라 설명하였고, 공동체 정체성, 시민적 참여, 네트워크, 정치적 안정,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집단적 자산이라 칭하였다.(홍영란 외, 2006)

사회적 자본은 조직 혹인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으로서 개인이나 조직 어느 하나에 귀속되지 않는 개념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들의 활동에 있어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효율을 높여주기도 하고, 협력적 행동을 통해 학습이나 혁신 그리고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게 된다.(이영현 외 3인, 2007). 또한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 내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박희봉 외 1, 2000)

<표 7> 사회적 자본의 개념

Coleman (1988)	사회구조를 구성하고 구조 안에서 개인과 조직의 행동을 쉽게 만드는 구성요소
Bourdieu (1986)	구성원 사이 관계를 부분적으로 제도화한 네트워크적 자원
Fukuya-ma (2000)	신뢰가 사회에 널리 퍼져 있음으로써 생기는 능력
Inkpen &Tsang (2005)	네트워크 내 개인 또는 조직이 보유한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그 관계 안에 존재하는 자원들의 총합
Baker (2000)	개인적 혹은 사업상의 네트워크로부터 얻어지는 자원
Putnum (1993)	사람들의 신뢰 관계에 내재한 것으로서 인간관계 내에 존재하는 신뢰성, 호혜적 협력, 네트워크

2. 사회적 자본의 측정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 네트워크, 신뢰, 규범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객관적으로 단일한 지표를 사용하여 파악하기는 어렵다. 사

회적 자본은 사회의 다양한 지표를 측정하여 이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는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연결망이라 할 수 있다(Portes, 1998). 하지만 이 두 가지 요소를 대표하는 대리변수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많은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이기에 분석의 목적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측정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Fukuyama(1999)는 시민사회, 출산율, 이혼율, 범죄데이터 등의 2차 자료를 활용한 지표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였다. Fukuyama(1995)는 신뢰는 지역사회 내 구성원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정직성 및 협력적 태도로부터 생겨난다고 하였다.

Putnum(1993)은 이탈리아 지방정부를 분석하며 지역별 사회적 자본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이익단체와 사회단체의 수, 정당 수, 신문구독률, 투표결과 등의 지표와 일반 사회조사를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였다. Putnam(1995)은 커뮤니티 조직 지표, 커뮤니티 봉사활동 지표, 공적 문제 참가 지표, 비공식적인 사교 지표, 사회 신뢰 지표의 5개 항목으로 미국 각 주의 사회적 자본을 계측하였다.

Putnam(1995)은 네트워크, 신뢰, 규범을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로 보았다. 네트워크는 상호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사회 조직의 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신뢰는 자원의 교환을 쉽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향상한다. 또한 지역사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생성되는 사회적 신뢰에 의지하여 운영된다.(박희봉・김명환, 2000) 또한 지역사회 규범은 지역사회 전체를 유지하는데 본질적인 것으로서 품위 있는 지역 생활을 위한 규범적인 기초로 여겨진다.(박희봉・김명환, 2000) 규범은 구체적으로 자발주의, 상호존중, 무차별 등으로 구성된다. 사회구조 속에서

여러 형태의 규범 가운데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집행되는 법률이 개인의 행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장치(유석춘・장미혜, 2002)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지역별 사회적 자본을 명확히 측정한 국가나 기관의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KDI에서 실시한 사회적 자본 연구는 지역별 측정이 되지 않고 있다. 다만 국가 통계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측면들을 조사해오고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대리변수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을 타겟으로 측정한 설문이 아니기에 국가 통계에서 활용하는 사회적 자본 문항들은 다양성 측면에서 상당히 제한적이다.(임동균, 2020)

송경재(2006)는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 지표를 설정하였다. '사적 신뢰'는 타인에 대한 신뢰 정도와 지역공동체에 대한 신뢰 정도로 측정하였다. '공적신뢰'는 법・제도 및 서비스 신뢰도, 공직자 신뢰, 준법수준을 측정하였다. '규범'은 시민들에 의한 호혜적 조직의 가입과 회비 납부 현황, 지역 공공질서 준수 여부를 분석지표로 측정하였다. '네트워크'지수는 지역의 세대 내 계층 이동, 세대 간 계층이동 가능성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대구, 대전, 광주 3개 지역만을 분석하고 있어 제한적으로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한 한계가 있다.

최종일・이기동・최성희(2012)는 사회적 자본축적의 지역별 차이와 시간적 변화를 측정하여 경제적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단일 시점 앙케이트 조사가 아닌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공식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공인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000-2010년의 지역별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여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최종일・이기동・최성희(2012)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공식적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시간별 추계에 따라 네트워크, 신뢰, 규범 지수에 따른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한계

사회적 자본에 대한 무수한 분야의 연구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기업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이준희, 2016) 먼저 사회적 자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사회적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들이 있다. 다수의 논문들이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개별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이준희(2016)는 사회적 자본을 인지적 자본, 구조적 자본, 관계적 자본으로 분류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등록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250개 기업을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용탁(2013)은 사회적기업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자본과 직무 만족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강문실·양성국(2016)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자본이 기업성과와 맥락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주지역 사회적기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김형주·전인오(2017)는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성과 사이에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인증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총 500부의 우편 및 이메일 설문지를 배포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권소일·이재희(2018)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네트워크 요소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152개를 분석 대상으로 설문 조사 연구를 하였다. 업종별 차이에 따라 구조적, 관계적, 인지적 네트워크 활동이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개별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된 것으로, 국가 공인 통계를 활용한 사회적 자본 지표를 통해 보다 공신력있는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황승미(2015)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둘러싼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의 수용성과 사회자본과의 연관성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문헌 연구 방법과 '2013년 서울 서베이'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인 통계 자료를 활용한 연구이나 서울 지역에 한정되어 연구를 실시한 한계가 있다. 박은영(2019)은 사회적기업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지역적으로 구분하고 차이를 탐색적으로 연구하였다. 전국 사회적기업들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121부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는 경기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그리고 강원도를 대상으로 지역 간 네트워크 차이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구하였다.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사회적 자본을 네트워크 측면에 국한하였고, 지역 역시 한정적으로 연구한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을 간접적인 영향 변수로 파악한 논문들이 있다. 김석호・이석형(2020)은 시민의 주관적 안녕을 조절변수로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안녕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고 나아가 주관적 안녕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주・전인오(2017)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구조적 자

본에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의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 추구성 요소만이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적기업가정신이 구조적 자본에 부분 매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적 자본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아, 기업 일반으로 범주를 넓혀 기업의 성과에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김성홍(2016)은 사회적 자본, 기술혁신활동, 제품혁신성과 간 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적 자본을 구조적 차원, 인지적 차원, 관계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기술혁신활동은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자본은 기술혁신활동과 제품혁신성과의 관계 사이에서 기술혁신활동을 매개하여 제품혁신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길호・강찬희(2019)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전과 충남 지역 전기공사 관련 중소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가정신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사회적 자본의 신뢰 지표는 경영성과와 성취욕구 사이에서 조절 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철호・김병근(2019)은 기업가지향성, 혁신역량, 시장지향성과 기업성과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업과 주요 고객과의 관계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은 기업가 지향성, 시장 지향성 및 R&D역량, 조직관리역량과 상호 보완하여 기술창업기업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안장훈・김선근(2017)은 기업가정신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두 변수 간 사회적 자본과 지적자본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혁신행동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제도적 신뢰와 네트워크는 혁신성과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관계적 신뢰는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승일(2017)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일환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변혁적 리더십과 사내 기업가정신 사이의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고 사내 기업가정신과 성과 사이의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변혁적 리더십과 사내 기업가정신 관계에서 변혁적 리더십 중 카리스마 수준이 향상될 때 혁신성이 증가하였으며 혁신성의 향상 정도는 상호작용 수준이 높을수록 강해지는 조절 효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변혁적 리더십과 사내기업가정신 관계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카리스마 수준이 증가할 때 위험감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감수성의 증가 정도는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내 기업가정신과 성과 관계에서 사내기업가정신의 진취성이 증가할 때 구성원몰입 수준이 증가하였으며 구성원의 몰입의 증가 정도는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내 기업가정신과 성과 사이에서 사내 기업가정신의 혁신성 수준이 증가할 때 구성원몰입이 함께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 정도는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강해져 조절 효과를 보여주었다.

오종철(2020)은 다른 논문들과 달리 사회적기업 활동의 참여가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지역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정하였다. 즉, 사회적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지역사회적 자본을 개념화하였으며 측정척도를 개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기업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그렇지 않은 구성원들보다 지역사회적 자본이 더 높은 것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기업의 성과의 유의미한 연관성을 추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들에서는 몇몇 개별 사회적기업의 사례에 의존하거나 일부 지역 내에서 조사가 시행되었다. 지역별 사회적 자본을 국가공인 통계 지표를 활용하여 계측하여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분석한 논문은 많지 않으며 특히 정부 및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성과 사이의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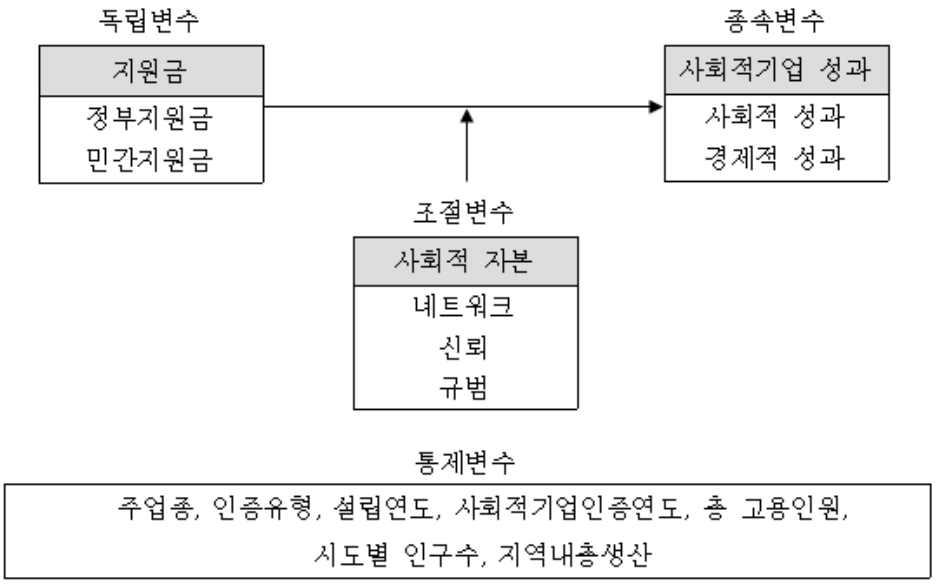
지역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고, 따라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데 지역적 배경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변수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정부 및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성과 사이에서 사회적 자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거나, 특정 지역을 연구하여 분석대상을 국한시킨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인 통계자료를 활용해 지역별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정부 및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성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규명할 것을 시도한다.

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1. 연구 모형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정부 및 민간 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을 위 <그림 1>과 같이 구성한다.

독립변수는 정부 및 민간 지원이며, 이에 따른 종속변수는 사회적기업의 성과이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는 사회적 자본이다. 구체적으로 정부 및 민간 지원은 정부지원금과 민간지원금으로 구분된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취약계층 고용인원을 지표로 측정한다.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매출액으로 측정한다.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신뢰, 규범 지표로 구성된다. 이때 통제변수는 주업종, 인증유형, 설립연도, 사회적기업인증연도, 총 고용인원, 시도별 인구수, 지역내총생산이다.

2. 연구 문제 및 가설 설정

정부 및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김숙연・김선구(2016), 김숙연・강수진,(2017), 도수관・박경화(2014) 등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며 설립된 기업으로서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 정부 및 민간지원금을 통해 기업 설립의 토대를 갖추고 지속적인 후원을 받은 기업은 사회적 성과 가치를 향상하는데 주력을 기울일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자금 명목으로 주어지는 지원금은 취약계층 고용인원을 증가시켜 사회적 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정부 및 민간지원금은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첫 번째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정부 및 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 정부지원금이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2 : 민간지원금이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정부 및 민간지원금과 경제적 성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김영규・김종일(2018), 고명일・양난주(2019), 이영수・길현종(2016)은 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정부 및 민간지원금이 높을수록 고용, 사업개발, 홍보 등 다양한 방면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효과적이고 공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상된 경제적 성과를 보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번째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 정부 및 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 정부지원금이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2 : 민간지원금이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가 증가할 것이다.

나아가 지역 내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이 지역 내에 자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사회적기업의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지역 내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지역

내 공헌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더 높은 네트워크와 신뢰, 규범 지수를 가진 지역의 사회적기업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 더 많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박현희・심동철(2017)은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은 지역사회와의 밀착도를 증가시켜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지역사회에서 정당성을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문제 해결하는 주체로 활동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지수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조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신뢰는 정보와 지식의 공유와 원활한 의사소통의 토대가 된다.(박희봉, 2002)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한 원활한 의견 교류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 지수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조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범은 구성원들이 상황에 대한 동일한 인식을 갖도록 한다.(박희봉, 2002) 같은 규범을 공유함으로써 규칙을 준수하고 질서를 확립하게 된다.(김동헌 외, 2006) 이러한 규범의 축적은 지역사회 활동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규범 지수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조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지역 내 사회적 자본은 정부 및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성과 사이에서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번째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정부 및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사이에서 사회적 자본이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3-1 : 정부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사이에서 네트워크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3-2 :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사이에서 네트워크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3-3 : 정부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사이에서 신뢰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3-4 :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사이에서 신뢰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3-5 : 정부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사이에서 규범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3-6 :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사이에서 규범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또한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높을 경우 지역 주민과 지역 내 사회적기업 간의 신뢰와 네트워크, 규범 지수가 높을 것이며 유대관계가 향상됨에 따라 시민이 사회적기업의 공동생산자로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활동은 특히 정부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자원 획득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자원동원력을 높여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지수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조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회주의적 행동을 규제하는 비용 혹은 협상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방지할 수 있다.(박희봉, 2002) 따라서 신뢰 지수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조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범은 역시 구성원의 기회주의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나아가 규범에 대한 공유와 지지를 통해 집단행동 문제도 해소할 수 있어 감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김동헌 외, 2006) 따라서 규범 지수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조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번째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 정부 및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사이에서 사회적 자본이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4-1 : 정부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사이에서 네트워크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4-2 :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사이에서 네트워크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4-3 : 정부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사이에서 신뢰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4-4 :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사이에서 신뢰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4-5 : 정부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사이에서 규범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4-6 :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사이에서 규범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제 2 절 자료 수집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독립변수 : 정부·민간지원금

본 연구는 정부 및 민간 지원을 금액 단위로 측정하고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시도한다. 정부 및 민간지원금은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표본은 2020년 경영공시 최종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020년 1110개의 기업 중 근로자 처우 개선 금액이 400억이 넘는 표본, 매출액이 1조가 넘는 표본 등 원본 데이터 값이 잘못된 것으로 추정되는 표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켜 1101개 기업을 표본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8> 지역별 사회적기업 수

년도	2020
강원	58
경기	148
경남	65
경북	80
광주	52
대구	38
대전	32
부산	45
서울	187
세종	10
울산	45
인천	54

전남	58
전북	60
제주	24
충남	48
충북	44
전국	1110

(출처 : 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표 9> 2020 자율경영공시 사회적기업 데이터 수

년도	원본 데이터	아웃라이어	최종 데이터
2020	1110	9	1101

(출처 : 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자율경영공시에 나타난 사회적기업 대상 정부 지원금은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정책자금, 기타 지원금 항목이다. 민간지원금은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민간금융지원, 기타 항목이다. 정부 및 민간지원금은 각 항목의 총금액 합계로 지원금 규모를 조작적 정의하였다.

<표 10> 정부 및 민간지원금

구분	지표	자료원
정부 지원금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전문인력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사회보험료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기타지원금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민간지원금	기업후원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모기관지원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일반기부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민간금융지원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기타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출처 : 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2. 종속변수 : 사회적기업의 성과

사회적기업의 성과는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표본은 2020년 경영공시 최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1101개 기업을 표본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로 나누어 지표를 설정하였다. 박현희・박은영(2017)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가치 중 경제적으로 환산 불가능한 비화폐적 가치를 사회적 성과로 보았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이 가장 중요시하는 사회적 성과는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창출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 환경 개선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의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반성식 외, 2011) 이에 따라 사회적 성과는 취약계층 고용인원으로 측정하였

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의 성과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김순양,2008) 박현희・박은영(2017)은 사회적기업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재정자립도의 향상 등을 경제적 성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시자료에 나타난 매출액을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데 활용하였다.

<표 11> 사회적기업의 성과 측정 지표

구분	지표	지표의 정의	자료원
사회적 성과	취약계층 고용인원	당해 년도 취약계층고용인원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경제적 성과	매출액	당해 년도 매출액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출처 : 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3. 조절변수 : 사회적 자본

본 연구는 시도별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통계청 '사회조사'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을 세 가지 구성요소인 네트워크, 신뢰, 규범의 변수로 분류하여 지표를 설정하였다.

네트워크 지수는 13세 인구 중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단체 참여, 사회적 관계망, 자원봉사활동 통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는 매우 만족, 약간 만족에 답한 인구 비중으로 계측하였다. 단체 참여와 자원봉사활동은 참여자 비율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관계망은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는 비율,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는 비율,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는 비율로 측정하였다.

신뢰 지수는 13세 인구 중 다른 사람들의 준법 수준,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전반적인 사회 안전),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도,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대응시켜 측정하였다. 다른 사람들의 준법 수준은 아주 잘 지킨다는 답변과 비교적 잘 지킨다는 답변을 합한 비율로 측정하였다.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전반적인 사회 안전)은 매우 안전과 비교적 안전이라고 답한 비율로 계측하였다.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도는 두려운 곳이 없다는 응답,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규범 지수는 자신의 준법 수준, 공공질서 준수 수준(교통약자 보호석 지키기, 거리 환경 질서, 공공장소 정숙, 금연 구역 준수, 보행질서, 운전자 교통질서, 차례 지키기) 항목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항목은 아주 잘 지킨다는 응답과 비교적 잘 지킨다는 응답을 한 비율로 측정하였다.

국가 공인 통계를 사용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였지만, 각 조사가 매년 실시되지 않아 지표들마다 시점이 일치하지 않고 시계열적 연속성이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8-2020 자료에 대한 선형보간법(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연속된 시계열 자료를 생성하였다.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된 2020년 사회적 자본 지수를 사용하였다.

<표 12>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

구분	지표	지표의 정의	자료원
네트워크	인간관계	13세 이상 인구 중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인구 비중	통계청 '사회조사'
	단체참여	13세 이상 인구 중 단체(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 등) 참여자 인구 비중	통계청 '사회조사'
	사회적 관계망	13세 이상 인구 중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다고 답한 인구 비중	통계청 '사회조사'
	사회적 관계망	13세 이상 인구 중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다고 답한 인구 비중	통계청 '사회조사'
	사회적 관계망	13세 이상 인구 중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다고 답한 인구 비중	통계청 '사회조사'
	자원봉사활동	13세 이상 인구 중 시민단체 참여자 인구 비중	통계청 '사회조사'
신뢰	준법 수준 -타인평가	13세 이상 인구 중 타인의 준법수준을 평가하여 잘 지킨다고 답한 인구 비중	통계청 '사회조사'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13세 이상 인구 중 전반적인 사회 안전이 안전하다고 답한 인구 비중	통계청 '사회조사'
	야간보행 안전도	13세 이상 인구 중 야간보행에 두려운 곳이 없다는 인구 비중	통계청 '사회조사'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13세 이상 인구 중 우리 사회에 대해 믿을 수 있다고 답한 인구 비중	통계청 '사회조사'

규범	공공질서수준-거리환경	13세 이상 인구 중 거리환경질서를 ‘잘 지킨다’고 답한 인구비중	통계청 ‘사회조사’
	공공질서 -교통질서	13세 이상 인구 중 교통질서를 ‘잘 지킨다’고 답한 인구비중	통계청 ‘사회조사’
	공공 질서 -공공 장소 금연	13세 이상 인구 중 공공장소 금연을 ‘잘 지킨다’고 답한 인구비중	통계청 ‘사회조사’
	공공 질서 -보행질서	13세 이상 인구 중 보행질서를 ‘잘 지킨다’고 답한 인구비중	통계청 ‘사회조사’
	공공 질서 -공공 장소 정숙	13세 이상 인구 중 공공장소 정숙을 ‘잘 지킨다’고 답한 인구비중	통계청 ‘사회조사’
	공공 질서 -차례 지키기	13세 이상 인구 중 차례지키기를 ‘잘 지킨다’고 답한 인구비중	통계청 ‘사회조사’

4. 통제변수 : 기업 및 지역단위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먼저 정부 및 민간지원금 규모와 사회적기업 성과를 측정한 기업 단위에서 설정하였다. 주업종, 인증유형, 설립연도, 사회적기업인증연도, 총 고용인원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한 지역 단위에서 시도별 인구수, 지역내총생산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13> 통제변수

단위	지표	자료원
기업	주업종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인증유형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설립연도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사회적기업인증연도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총 고용인원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지역	시도별 인구수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통계청

<표 14> 인증유형 범주 및 코드

인증유형	코드
기타(창의・혁신)형	1
사회서비스제공형	2
일자리제공형	3
지역사회공헌형	4
혼합형	5

(출처 : 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표 15> 주업종 범주 및 코드

주업종	코드
농업, 임업 및 어업(A)	1
제조업(C)	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4
건설업(F)	5
도매 및 소매업(G)	6
운수업(H)	7
숙박 및 음식점업(I)	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9
금융 및 보험업(K)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1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14
교육 서비스업(P)	1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18

(출처 : 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식 1>은 가설 1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 및 민간지원금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식 2>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및 민간지원금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변화를 보고자 한다.

<식 1>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 β_0

$+ \beta_1 \times$ (정부지원금) $+ \beta_2 \times$ (민간지원금)

$+ \beta_3 \times$ (주업종) $+ \beta_4 \times$ (인증유형) $+ \beta_5 \times$ (설립연도)

$+ \beta_6 \times$ (사회적기업인증연도) $+ \beta_7 \times$ (총 고용인원)

$+ \beta_8 \times$ (시도별 인구수) $+ \beta_9 \times$ (지역내총생산) $+ \varepsilon_{it}$

<식 2>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 β_0

$+ \beta_1 \times$ (정부지원금) $+ \beta_2 \times$ (민간지원금)

$+ \beta_3 \times$ (주업종) $+ \beta_4 \times$ (인증유형) $+ \beta_5 \times$ (설립연도)

$+ \beta_6 \times$ (사회적기업인증연도) $+ \beta_7 \times$ (총 고용인원)

$+ \beta_8 \times$ (시도별 인구수) $+ \beta_9 \times$ (지역내총생산) $+ \varepsilon_{it}$

<식 3-1>, <식 3-2>, <식 3-3>은 가설 3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자본이 정부 및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사이에서 조절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네트워크, 신뢰, 규범 지표마다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때 조절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여 회귀 결과를 분석한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작업을 수행한다.

<식 3-1>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 β_0

+ β_1 × (mc정부지원금) + β_2 × (mc민간지원금)

+ β_3 × (주업종) + β_4 × (인증유형) + β_5 × (설립연도)

+ β_6 × (사회적기업인증연도) + β_7 × (총 고용인원)

+ β_8 × (시도별 인구수) + β_9 × (지역내총생산)

+ β_{10} × (mc네트워크) + β_{11} × (mc네트워크×정부지원금)

+ β_{11} × (mc네트워크×민간지원금) + ε_{it}

<식 3-2>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 β_0

+ β_1 × (mc정부지원금) + β_2 × (mc민간지원금)

+ β_3 × (주업종) + β_4 × (인증유형) + β_5 × (설립연도)

+ β_6 × (사회적기업인증연도) + β_7 × (총 고용인원)

+ β_8 × (시도별 인구수) + β_9 × (지역내총생산)

+ β_{10} × (mc신뢰) + β_{11} × (mc신뢰×정부지원금)

+ β_{11} × (mc신뢰×민간지원금) + ε_{it}

<식 3-3>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 β_0

+ β_1 × (mc정부지원금) + β_2 × (mc민간지원금)

+ β_3 × (주업종) + β_4 × (인증유형) + β_5 × (설립연도)

+ β_6 × (사회적기업인증연도) + β_7 × (총 고용인원)

$+ \beta_8 \times$ (시도별 인구수) $+ \beta_9 \times$ (지역내총생산)

$+ \beta_{10} \times$ (mc규범) $+ \beta_{11} \times$ (mc규범×정부지원금)

$+ \beta_{11} \times$ (mc규범×민간지원금) $+ \varepsilon_{it}$

<식 4-1>, <식 4-2>, <식 4-3>은 가설 4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자본이 정부 및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사이에서 조절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네트워크, 신뢰, 규범 지표마다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때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여 회귀 결과를 분석한다. 역시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작업을 수행한다.

<식 4-1>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 \beta_0$

$+ \beta_1 \times$ (mc정부지원금) $+ \beta_2 \times$ (mc민간지원금)

$+ \beta_3 \times$ (주업종) $+ \beta_4 \times$ (인증유형) $+ \beta_5 \times$ (설립연도)

$+ \beta_6 \times$ (사회적기업인증연도) $+ \beta_7 \times$ (총 고용인원)

$+ \beta_8 \times$ (시도별 인구수) $+ \beta_9 \times$ (지역내총생산)

$+ \beta_{10} \times$ (mc네트워크) $+ \beta_{11} \times$ (mc네트워크×정부지원금)

$+ \beta_{11} \times$ (mc네트워크×민간지원금) $+ \varepsilon_{it}$

<식 4-2>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 \beta_0$

$+ \beta_1 \times$ (mc정부지원금) $+ \beta_2 \times$ (mc민간지원금)

$+ \beta_3 \times$ (주업종) $+ \beta_4 \times$ (인증유형) $+ \beta_5 \times$ (설립연도)

$+ \beta_6 \times$ (사회적기업인증연도) $+ \beta_7 \times$ (총 고용인원)

$+ \beta_8 \times$ (시도별 인구수) $+ \beta_9 \times$ (지역내총생산)

$+ \beta_{10} \times$ (mc신뢰) $+ \beta_{11} \times$ (mc신뢰×정부지원금)

$+ \beta_{11} \times$ (mc신뢰×민간지원금) $+ \varepsilon_{it}$

<식 4-3>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 \beta_0$

$+ \beta_1 \times$ (mc정부지원금) $+ \beta_2 \times$ (mc민간지원금)

$+ \beta_3 \times$ (주업종) $+ \beta_4 \times$ (인증유형) $+ \beta_5 \times$ (설립연도)

$+ \beta_6 \times$ (사회적기업인증연도) $+ \beta_7 \times$ (총 고용인원)

$+ \beta_8 \times$ (시도별 인구수) $+ \beta_9 \times$ (지역내총생산)

$+ \beta_{10} \times$ (mc규범) $+ \beta_{11} \times$ (mc규범×정부지원금)

$+ \beta_{11} \times$ (mc규범×민간지원금) $+ \varepsilon_{it}$

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기초통계량 및 상관분석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량을 구한 결과 <표 16>과 같다.

<표 16>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Variable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Observation
취약계층 고용인원 (명)	12.35	29.6	0	421	1,101

매출액 (만원)	1425543	2806307	0	34574051	1,101
정부지원금 (천원)	130870.3	220764.7	0	3964264	1,101
민간지원금 (천원)	54158.25	374623.1	0	9246457	1,101
네트워크 (%)	58.31	1.1184	56.4	63	1,101
신뢰 (%)	49.57	2.0130	46.8	55	1,101
규범 (%)	62.53	2.5441	55.8	68.6	1,101
사회적자본 (%)	56.8	1.3556	53.6	60.9	1,101
주업종 (코드)	8.60	5.9111	1	18	1,101
인증유형 (코드)	2.87	0.9785	1	5	1,101
설립연도 (연도)	2011.71	4.7303	1976	2019	1,101
사회적기업 인증연도 (연도)	2015.91	3.1005	2007	2019	1,101
총 고용인원 (백명)	20.79	45.5023	0	620	1,101
시도별 인구수 (만명)	565.73	456.7355	36.53	1353.05	1,101
지역내총생산 (백억원)	18472.36	16209.31	1109.1	41409.3	1,101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사회적 가치로 활용한 취약계층 고용인원의 평균은 12.35명으로 최솟값은 0, 최댓값은 421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종속변수인 경제적 가치로 활용한 매출액의 평균은 1425543만원으로 최솟값은 0, 최댓값은 34574051을 보여 역시 큰 차이가 있다.

독립변수인 정부지원금의 경우 평균 130870.3천원으로 최솟값 0, 최댓값 3964264을 보이고 있다. 민간지원금의 경우 54158.25천원으로 최솟값 0, 최댓값 9246457을 보이고 있다.

조절변수인 사회적 자본의 평균은 56.8%이며 최솟값은 53.6, 최댓값은 60.9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각 지수별로 살펴보면 네트워크 지수의 평균은 58.31%, 최솟값 56.4, 최댓값 63, 신뢰 지수의 평균은 49.57%, 최솟값 46.8, 최댓값 55, 규범 지수의 평균은 62.53%, 최솟값 55.8, 최댓값 68.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통제변수인 주업종, 인증유형, 설립연도, 사회적기업인증연도, 총 고용인원 역시 기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별로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시도별 인구수, 지역내총생산 역시 지역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요변수의 상관분석을 진행한 결과 <표 16>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 중 사회적 가치인 취약계층 고용인원의 경우 모든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종속변수 중 경제적 가치인 매출액의 경우 인증유형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변수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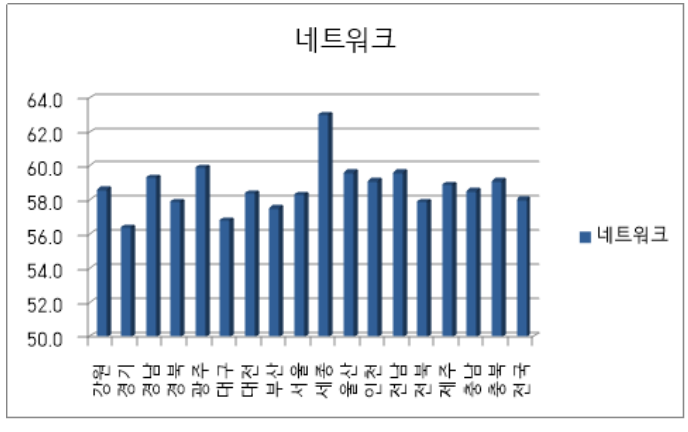
독립변수로 사용된 정부지원금은 주업종, 총 고용인원, 지역내총생산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민간지원금은 주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주요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때 두 독립변수 간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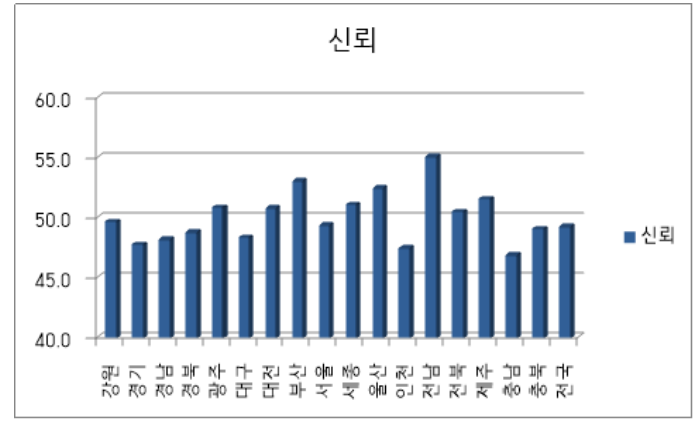
<표 17> 주요변수 상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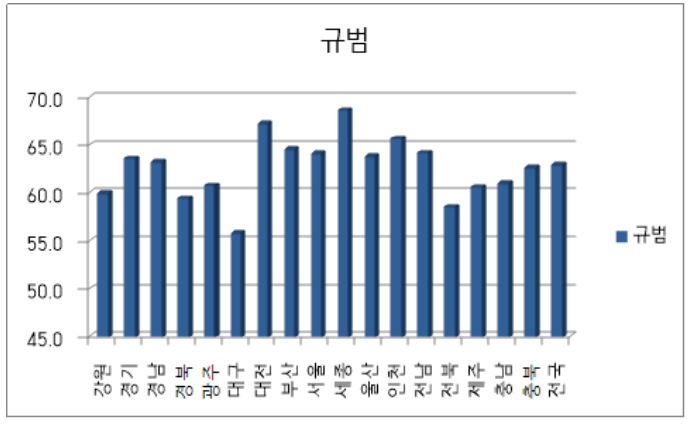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 취약계층고용	1.0000										
(2) 매출액	0.3709***	1.0000									
(3) 정부지원금	0.1551***	0.1702***	1.0000								
(4) 민간지원금	0.1195***	0.4083***	0.0457	1.0000							
(5) 주업종	0.1290***	-0.1663***	-0.0639**	-0.0322	1.0000						
(6) 인증유형	0.1326***	0.0334	0.0026	-0.0625**	-0.1297***	1.0000					
(7) 설립연도	-0.1146***	-0.2017***	0.0197	-0.0885**	0.0397	0.0027	1.0000				
(8) 인증연도	-0.2189***	-0.1701***	-0.0018	-0.1028***	-0.0404	-0.0352	0.5606***	1.0000			
(9) 총 고용인원	0.9190***	0.5128***	0.2031***	0.3277***	0.1220***	0.0779***	-0.1343***	-0.2420***	1.0000		
(10) 시도별 인구	0.1228***	0.1122***	-0.0416	0.0610**	0.0172	-0.1746***	-0.0479	-0.0024	0.1282***	1.0000	
(11) GRDP	0.1298***	0.1458***	-0.0553*	0.0836**	0.0268	-0.2258***	-0.0718	-0.0062	0.1400***	0.8659***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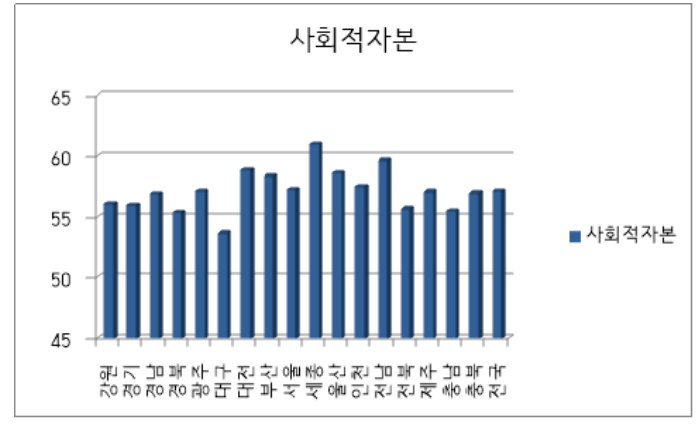
(*: p<0.1, **: p<0.05, ***: p<0.01)

<그림 2> 조절변수 기초통계량









조절변수로 사용된 사회적 자본의 구성 지표인 네트워크, 신뢰, 규범은 지역별로 <그림 2>와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은 <표 17>에 나타난 바에 따라 각각 강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들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평균중심화 기법을 사용한다.

<표 18> 조절변수 상관분석

	(1) 네트워크	(2) 신뢰	(3) 규범
(1) 네트워크	1.0000		
(2) 신뢰	0.4197***	1.0000	
(3) 규범	0.2028***	0.1410***	1.0000

(***: p<0.01)

제 2 절 회귀분석

1. 회귀분석 결과

먼저 <표 19>는 본 연구의 가설 1, 2를 검증하기 위한 <식 1>, <식 2>의 분석 결과이다. 가설 1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약계층 고용과 정부지원금 및 민간지원금의 관계가 유의수준 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한 단위 높아짐에 따라 취약계층 고용이 0.000005 단위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정부지원금이 천 원만큼 높아질 때마다 취약계층 고용이 0.000005명만큼 낮아지는 것이다. 또한 민간지원금 역시 취약계층 고

용과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간지원금이 한 단위 높아짐에 따라 취약계층 고용이 0.0000158 단위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민간지원금이 천원만큼 증가할 때마다 취약계층 고용이 0.0000158명만큼 감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민간지원금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성과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과 정부지원금 및 민간지원금의 관계가 유의수준 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높아짐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한 단위 높아짐에 따라 매출액이 0.8518595 단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정부지원금이 천원만큼 증가할 때마다 매출액이 8518.595원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지원금 역시 매출액과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간지원금이 한 단위 높아짐에 따라 매출액이 1.841825 단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민간지원금이 천원만큼 증가할 때마다 매출액이 18418.25원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민간지원금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성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회귀분석 결과 (가설 1, 2)

변수 \ 종속변수		취약계층고용인원	매출액
독립변수	정부지원금	-.000005***	.8518595***
	민간지원금	-.0000158***	1.841825***
통제변수	주업종	.0300418	-95422.68***
	인증유형	1.456652***	20486.91
	설립연도	.0090281	-71785.76***

	인증연도	.0008239	16205.93
	총고용	.6408362***	25997.93***
	시도별인구	.0001311	-349.7171
	GRDP	.0000287	20.35083**
상수		-24.37318	113000000**
사례수		1,101	1,101
R^2		.885	.3937
F		932.78***	78.71***

(**: p<0.05, ***: p<0.01)

다음으로 <표 20>은 본 연구의 가설 3-1을 검증하기 위한 <식 3-1>의 분석 결과이다. 다중공선성을 제거하기 위해 변수를 평균중심화하여 분석하였다. 가설 3-1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지원과 민간지원은 유의수준 1% 하에서 취약계층 고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네트워크 지수는 유의수준 10% 하에서 취약계층 고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직접적 독립변수로 작동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 지수는 정부지원금이 취약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는 유의수준 10% 하에서 유의미한 조절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네트워크와 민간지원금과의 상호작용항이 유의수준 1% 하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네트워크 지수는 민간지원금이 취약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음(-)의 조절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지수는 민간지원금이 높아짐에 따라 취약계층 고용이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에 증폭적 영향을 미쳐, 취약계층 고용 저하를 강하게 만드는 조절변수로 파악되었다. 즉, 조절변수 투입 전 민간지원금은 천원만큼 증가할 때마다

취약계층고용을 -0.0000158명만큼 낮추었으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이후 -0.000017명만큼 낮추어 강화 조절 효과를 나타내었다.

<표 20> 회귀분석 결과 (가설 3-1)

변수 \ 종속변수		사회적 성과		
		1단계	2단계	3단계
독립변수	정부지원금	-.000005***	-.000005***	-.000005***
	민간지원금	-.0000158***	-.0000158***	-.000017***
	네트워크		0.0913374	0.391887
	정부지원금 X네트워크			.0000006
	민간지원금 X네트워크			-.000007***
통제변수	주업종	.300418	.0294441	.0342729
	인증유형	1.456652***	1.455267***	1.41135***
	설립연도	.0090281	.0090989	.0061646
	인증연도	.0008239	.0015904	-.0029616
	총고용	.6408362***	.6408252***	.6427015***
	시도별인구	.0001311	.0002148	.0000244
	GRDP	.0000287	.00003	.0000358
상수		-25.8357	-27.58524	-12.564
사례수		1,101	1,101	1,101
R^2		.885	.885	.8872
F		932.78***	838.8***	713.12***

(*: p<0.1, **: p<0.05, ***: p<0.01)

다음으로 <표 21>은 본 연구의 가설 3-2을 검증하기 위한 <식 3-2>의 분석 결과이다. 다중공선성을 제거하기 위해 변수를 평균중심화하여 분석하였다. 가설 3-2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지원과 민간지원은 유의수준 1% 하에서 취약계층 고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뢰 지수는 유의수준 10% 하에서 취약계층 고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직접적 독립변수로 작동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 지수는 민간지원금이 취약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는 유의수준 10% 하에서 유의미한 조절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신뢰와 정부지원금과의 상호작용항이 유의수준 10% 하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신뢰 지수는 정부지원금이 취약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양(+)의 조절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뢰 지수는 정부지원금이 높아짐에 따라 취약계층 고용이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에 대립적인 영향을 미쳐, 취약계층 고용 저하를 약하게 만드는 조절변수로 파악되었다. 즉, 조절변수 투입 전 정부지원금은 천원만큼 증가할 때마다 취약계층고용을 -0.000005명만큼 낮추었으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이후에는 -0.000004명만큼 낮추어 완화 조절 효과를 나타내었다.

<표 21> 회귀분석 결과 (가설 3-2)

변수 \ 종속변수		사회적 성과		
		1단계	2단계	3단계
독립변수	정부지원금	-.000005***	-.000005***	-.000004***
	민간지원금	-.0000158***	-.0000158***	-.0000165***
	신뢰		0.0049674	.0679132

	정부지원금 X신뢰			.000002*
	민간지원금 X신뢰			-.000002
통제 변수	주업종	.300418	.0300575	.0310416
	인증유형	1.456652***	1.456097***	1.436108***
	설립연도	.0090281	.0089166	.0067378
	인증연도	.0008239	.0007266	.0058959
	총고용	.6408362***	.6408403***	.6418435***
	시도별인구	.0001311	.0001401	-.000088
	GRDP	.0000287	.0000287	.0000325
상수		-25.8357	-25.41909	-31.43031
사례수		1,101	1,101	1,101
R^2		.885	.885	.8855
F		932.78***	838.73***	701.26***

(*: p<0.1, **: p<0.05, ***: p<0.01)

다음으로 <표 22>는 본 연구의 가설 3-3을 검증하기 위한 <식 3-3>의 분석 결과이다. 다중공선성을 제거하기 위해 변수를 평균중심화하여 분석하였다. 가설 3-3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지원과 민간지원은 유의수준 1% 하에서 취약계층 고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규범 지수는 유의수준 10% 하에서 취약계층 고용과 유의미한 조절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직접적 독립변수로 작동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범 지수는 정부지원금이 취약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는 유의수준 10% 하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규

범과 민간지원금과의 상호작용항이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규범 지수는 정부지원금이 취약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음(-)의 조절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규범 지수는 민간지원금이 높아짐에 따라 취약계층 고용이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에 증폭적 영향을 미쳐야 하나, 규범 지수의 영향이 일정 정도 작동한 바 취약계층 고용 저하를 약하게 만드는 조절변수로 파악되었다. 즉, 조절변수 투입 전에는 민간지원금은 천원만큼 증가할 때마다 취약계층고용을 -0.0000158명만큼 낮추었으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이후 -0.0000144명만큼 낮추어 완화 조절 효과를 나타내었다.

<표 22> 회귀분석 결과 (가설 3-3)

변수 \ 종속변수		사회적 성과		
		1단계	2단계	3단계
독립변수	정부지원금	-.000005***	-.000005***	-.000005***
	민간지원금	-.0000158***	-.0000158***	-.0000144***
	규범		.0398667	.0612844
	정부지원금 X규범			.0000008
	민간지원금 X규범			-.000001**
통제변수	주업종	.300418	.0298658	.0284135
	인증유형	1.456652***	1.457043***	1.476158***
	설립연도	.0090281	.0078763	.0078878
	인증연도	.0008239	.002762	.0089603

	총고용	.6408362***	.6407952***	.6421366***
	시도별인구	.0001311	.0001315	.0000332
	GRDP	.0000287	.0000264	.0000253
상수		-25.8357	-27.38228	-39.88502
사례수		1,101	1,101	1,101
R^2		.885	.8850	.8858
F		932.78***	838.81***	703.03***

(*: p<0.1, **: p<0.05, ***: p<0.01)

다음으로 <표 23>은 본 연구의 가설 4-1을 검증하기 위한 <식 4-1>의 분석 결과이다. 다중공선성을 제거하기 위해 변수를 평균중심화하여 분석하였다. 가설 4-1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지원과 민간지원은 유의수준 1% 하에서 매출액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네트워크 지수는 유의수준 10% 하에서 매출액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직접적 독립변수로 작동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 지수는 정부지원금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는 유의수준 10% 하에서 유의미한 조절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네트워크와 민간지원금과의 상호작용항이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네트워크 지수는 민간지원금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양(+)의 조절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지수는 민간지원금이 높아짐에 따라 매출액이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에 증폭적 영향을 미쳐, 매출액 증가를 강하게 만드는 조절변수로 파악되었다. 즉, 조절변수 투입 전 민간지원금은 천원만큼 증가할 때마다 매출액을 18418.25원만큼 높였으나 조절변수 상호작용

항이 투입된 이후 19711.16원만큼 높여 강화 조절 효과를 나타내었다.

<표 23> 회귀분석 결과 (가설 4-1)

변수 \ 종속변수		경제적 성과		
		1단계	2단계	3단계
독립 변수	정부지원금	.8518595***	.8604081***	.8439667***
	민간지원금	1.841825***	1.841168***	1.971116***
	네트워크		106908	104185.7
	정부지원금 X네트워크			.2481543
	민간지원금 X네트워크			.7878215**
통제 변수	주업종	-95422.68***	-96122.27***	-96939.28***
	인증유형	20486.91	18866.63	24974.52
	설립연도	-71785.76***	-71702.8***	-71486.45***
	인증연도	16205.36	17102.55	16652.69
	총고용	25997.93***	25985.02***	25895.41***
	시도별인구	-349.7171	-251.723	-238.5736
	GRDP	20.35083**	21.84772***	21.07483**
상수		113000000**	111000000**	112000000**
사례수		1,101	1,101	1,101
R^2		.3937	.3894	.3989
F		78.71***	71.15***	60.18***

(*: p<0.1, **: p<0.05, ***: p<0.01)

다음으로 <표 24>는 본 연구의 가설 4-2을 검증하기 위한 <식 4-2>의 분석 결과이다. 다중공선성을 제거하기 위해 변수를 평균중심화하여 분석하였다. 가설 4-2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지원은 유의수준 5%, 민간지원은 유의수준 1% 하에서 매출액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뢰 지수는 유의수준 10% 하에서 매출액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직접적 독립변수로 작동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 지수는 정부지원금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는 유의수준 10% 하에서 유의미한 조절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신뢰와 민간지원금과의 상호작용항이 유의수준 1% 하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신뢰 지수는 민간지원금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양(+)의 조절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뢰 지수는 민간지원금이 높아짐에 따라 매출액이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에 증폭적 영향을 미쳐, 매출액 증가를 강하게 만드는 조절변수로 파악되었다. 즉, 조절변수 투입 전 민간지원금은 천원만큼 증가할 때마다 매출액을 18418.25원만큼 높였으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이후 22508.89원만큼 높여 강화 조절 효과를 나타내었다.

<표 24> 회귀분석 결과 (가설 4-2)

변수 \ 종속변수		경제적 성과		
		1단계	2단계	3단계
독립변수	정부지원금	.8518595***	.845402***	.7417793**
	민간지원금	1.841825***	1.837928***	2.250889***
	신뢰		43821.98	90753.76
	정부지원금 X신뢰			.0874678

	민간지원금 X신뢰			1.317096***
통제 변수	주업종	-95422.68***	-95284.29***	-98482.06***
	인증유형	20486.91	15597.12	11610.46
	설립연도	-71785.76***	-72769.22***	-71921.73***
	인증연도	16205.36	15347.46	17336.67
	총고용	25997.93***	26033.5***	26066.97***
	시도별인구	-349.7171	-270.118	-238.7733
	GRDP	20.35083**	20.34044**	20.72979***
상수		113000000**	117000000***	111000000**
사례수		1,101	1,101	1,101
R^2		.3937	.3945	.4065
F		78.71***	71.01***	62.11***

(*: p<0.1, **: p<0.05, ***: p<0.01)

다음으로 <표 25>는 본 연구의 가설 4-3을 검증하기 위한 <식 4-3>의 분석 결과이다. 다중공선성을 제거하기 위해 변수를 평균중심화하여 분석하였다. 가설 4-3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지원과 민간지원은 유의수준 1% 하에서 매출액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규범 지수는 유의수준 10% 하에서 매출액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직접적 독립변수로 작동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범 지수는 정부지원금 및 민간지원금과의 상호작용항이 유의수준 1% 하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규범 지수는 정부지원금과 민간지원금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양(+)의 조절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규범 지수는 정부지원금이 높아짐에 따라 매출액이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에 증폭적 영향을 미쳐, 매출액 증가를 강하게 만드는 조절변수로 파악되었다. 반면 민간지원금이 높아짐에 따라 매출액이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에는 증폭적 영향을 미쳐야 하나 규범 지수의 영향이 작용한 결과, 매출액 증가를 약하게 만드는 조절변수로 파악되었다. 즉, 조절변수 투입 전 정부지원금은 천원만큼 증가할 때마다 매출액을 8518.595원만큼 높였으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이후 11399.97원만큼 높여 조절 강화효과를 나타내었다. 반면 조절변수 투입 전 민간지원금은 천원만큼 증가할 때마다 매출액을 18418.25원만큼 높였으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이후 14337.09원만큼 높여 완화 조절 효과를 나타내었다.

<표 25> 회귀분석 결과 (가설 4-3)

변수 \ 종속변수		경제적 성과		
		1단계	2단계	3단계
독립변수	정부지원금	.8518595***	.8547145***	1.139997***
	민간지원금	1.841825***	1.842042***	1.433709***
	규범		7177.983	-889.5926
	정부지원금 X규범			.3121829***
	민간지원금 X규범			.3034115***
통제변수	주업종	-95422.68***	-95454.38***	-94920.98***
	인증유형	20486.91	20557.44	14518.34
	설립연도	-71785.76***	-71993.13***	-71939.03***
	인증연도	16205.36	16554.32	14692.11

	총고용	25997.93***	25990.55***	25492.5***
	시도별인구	-349.7171	-349.6346	-316.6947
	GRDP	20.35083**	19.93816**	20.37539**
상수		113000000**	113000000**	117000000***
사례수		1,101	1,101	1,101
R^2		.3937	.3937	.4028
F		78.71***	70.79***	61.15***

(*: p<0.1, **: p<0.05, ***: p<0.01)

2. 가설 검증

이상으로 알아본 가설 검증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설 1 : 정부 및 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가설 1-1 : 정부 지원금이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증가할 것이다. - 기각
가설 1-2 : 민간지원금이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증가할 것이다. - 기각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부 및 민간지원금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여 <가설 1>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구체적 영향의 양상에 있어서는 설정한 가설과는 다른 결과

를 보였다. 김숙연・김선구(2016), 김숙연・강수진, (2017), 도수관・박경화(2014) 등 사회적기업 성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정부의 적절한 재정지원이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정부 및 민간지원금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1-1> 및 <가설 1-2>를 기각하였으며 황춘환 외(2014), 류호영・이장희・이상철(2020)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결과에 대한 구체적 해석은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 가설 설정 당시에는 정부 및 민간지원금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사회적 성과 가치를 향상하는데 주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 및 민간지원금이 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초기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인증 및 설립 초기의 기업은 사회적 성과보다 경제적 성과에 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기에 사회적 성과에는 소홀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 및 민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건실한 사회적기업의 재정 조건을 만들어야 하기에 경제적 성과에 치우져 사회적 성과는 미진할 수도 있다. 혹은 정부 및 민간지원금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 가치 달성에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원인은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가설 2 : 정부 및 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가설 2-1 : 정부 지원금이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가 증가할 것이다. - 채택

가설 2-2 : 민간지원금이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가 증가

할 것이다. - 채택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부 및 민간지원금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여 <가설 2>을 채택하였다.

영향의 양상에서도 설정한 가설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정부 및 민간지원금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2-1> 및 <가설 2-2>를 채택하였으며 김영규・김종일(2018), 고명일・양난주(2019), 이영수・길현종(201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류호영・이장희・이상철(202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얻었다.

가설 3 : 정부 및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사이에서 사회적 자본이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일부채택

가설 3-1 : 정부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사이에서 네트워크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기각

가설 3-2 :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사이에서 네트워크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기각

가설 3-3 : 정부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사이에서 신뢰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채택

가설 3-4 :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사이에서 신뢰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기각

가설 3-5 : 정부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사이에서 규범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기각

가설 3-6 :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사이에서 규범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채택

본 연구에서는 평균 중심화 작업 후 생성된 상호작용항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네트워크, 신뢰, 규범 지수가 각각 민간지원금, 정부 지원금, 민간지원금이 취약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3>을 일부 채택하였다.

영향의 양상에 있어서는 설정한 가설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먼저 네트워크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3-1>은 기각하였다.

반면 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설 1>의 결과와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강화 조절 효과를 보여주었다. 처음 가설은 정부 및 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을 증대시키고 네트워크 지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취약계층 고용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았으나, 결론적으로 정부 및 민간지원금은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을 감소시키며 네트워크 지수가 높을수록 민간지원금의 취약계층 고용 감소 효과가 강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처음 설정한 가설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 <가설 3-2>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원인은 보다 심층적인 질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가설 1>의 해석과 결합하여 추론해보면 네트워크 지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내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나 가교형 네트워크보다 결속형 네트워크의 양상이 두드러져 지역 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규모 네트워크를 공고히함으로써 이권을 강화하는 네트워크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신뢰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설 1>의 결과와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완화 조절 효과를 보여주었다. 처음 가설은 정부 및 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을 증대시키고 신뢰 지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취약계층 고용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았으나, 결론적으로 정부 및 민간지원금은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을 감소시키며 신뢰 지수가 높을수록 정부지원금의 취약계층 고용 감소 효과가 완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처음 설정한 가설의 의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 <가설 3-3>은 채택하였다.

반면 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4>는 기각하였다.

지역 내 신뢰 지수가 향상될수록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원활한 의견 교류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정부지원금이 취약계층 고용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줄 지라도, 지역 내 신뢰 지수가 높다면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고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규범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3-5>는 기각하였다.

반면 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는 결과적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설 1>의 결과와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완화 조절 효과를 보여주었다. 처음 가설은 정부 및 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을 증대시키고 신뢰 지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취약계층 고용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았으나, 결론적으로 정부 및 민간지원금은 사회적기업의 취약계

층 고용을 감소시키며 규범 지수가 높을수록 민간지원금의 취약계층 고용 감소 효과가 완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처음 설정한 가설의 의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 <가설 3-6>은 채택하였다.

지역 내 규범 지수가 향상될수록 구성원들은 상황에 대해 동일한 인식 하에 규칙을 준수하고 질서가 확립된다. 이러한 규범 지수의 향상은 지역사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끌게 되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민간지원금이 취약계층 고용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줄 지라도, 지역 내 규범 지수가 높다면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고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4 : 정부 및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사이에서 사회적 자본이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일부채택

가설 4-1 : 정부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사이에서 네트워크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기각

가설 4-2 :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사이에서 네트워크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채택

가설 4-3 : 정부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사이에서 신뢰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기각

가설 4-4 :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사이에서 신뢰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채택

가설 4-5 : 정부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사이에서 규범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채택

가설 4-6 :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사이에서 규범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기각

<가설 4>에서는 평균 중심화 작업 후 생성된 상호작용항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네트워크, 신뢰, 규범 지수가 각각 민간지원금, 민간지원금, 정부 및 민간지원금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4>를 일부 채택하였다.

영향의 양상에 있어서는 경제적 성과 역시 설정한 가설과 다소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먼저 네트워크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4-1>은 기각하였다.

반면 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설 2>의 결과와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강화 조절 효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민간지원금과 매출액 사이에서 네트워크 지수는 처음 설정한 가설의 의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 <가설 4-2>는 채택하였다.

지역 내 네트워크 지수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은 지역 내 자원동원력을 높일 수 있어 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긍정적인 조절 효과를 미칠 것이다.

신뢰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4-3>은 기각하였다. 반면 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설 2>의 결과와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강화 조절 효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민간지원금과 매출액 사이에서 신뢰 지수는 처음 설정한 가설의 의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 <가설 4-4>는 채택하였다.

지역 내 신뢰 지수가 높을수록 기업은 기회주의적 행동 및 역선택을 규제하는 비용이나 협상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민

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긍정적인 조절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규범의 경우 정부지원금과 민간지원금 모두에서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부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설 2>의 결과와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강화 조절 효과를 보여주었다. 반면 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는 결과적으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설 2>의 결과와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완화 조절 효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정부지원금과 매출액 사이에서 규범 지수는 처음 설정한 가설의 의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 <가설 4-5>는 기각하였다. 반면 민간지원금과 매출액 사이에서 규범 지수는 처음 설정한 가설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 <가설 4-6>은 채택하였다.

규범 지수는 정부지원금과 민간지원금에서 다른 양상의 결과를 보인 것이 특징적이다. 지역 내 규범 지수가 높을수록 기회주의적 행동을 통제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정부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증대에 강화 조절 효과로 기능하여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규범은 민간지원금과 매출액 사이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완화 조절 효과를 보였는데, 정부지원금보다 기준이 비교적 유연한 민간지원금이 경직적 규범과 정합성이 떨어져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상의 가설 검증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표 26>과 같다.

<표 26> 가설검증 결과

가설	문항	채택 여부
가설 1	정부 및 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1	정부 지원금이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증가할 것이다.	기각
가설 1-2	민간지원금이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증가할 것이다.	기각
가설 2	정부 및 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1	정부 지원금이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가 증가할 것이다.	채택
가설 2-2	민간지원금이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가 증가할 것이다.	채택
가설 3	정부 및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사이에서 사회적 자본이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일부 채택
가설 3-1	정부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사이에서 네트워크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기각
가설 3-2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사이에서 네트워크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기각
가설 3-3	정부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사이에서 신뢰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채택
가설 3-4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사이에서 신뢰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기각
가설 3-5	정부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사이에서 규범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기각

가설 3-6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사이에서 규범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채택
가설 4	정부 및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사이에서 사회적 자본이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일부 채택
가설 4-1	정부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사이에서 네트워크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기각
가설 4-2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사이에서 네트워크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채택
가설 4-3	정부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사이에서 신뢰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기각
가설 4-4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사이에서 신뢰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채택
가설 4-5	정부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사이에서 규범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채택
가설 4-6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사이에서 규범 지수가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기각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요약

전세계적으로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시정할 시대적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시장 행위자의 사회적 역할을 기반으로 상생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현

대적 실천이 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성질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적 기업의 성과는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정부 및 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때 사회적기업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성장 토대는 지역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곽선화, 2009) 사회적기업은 시민들과 상호작용하며 발전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지역 내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높아진 사회적 자본은 다시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조절 영향 또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관련하여 조직 내부적 요인 혹은 외부의 재정 지원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사회적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 및 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조절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및 민간지원금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및 민간지원금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부 및 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사회적 자본이 작용하는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 네트워

크 지수는 민간지원금의 사회적 성과 감소 효과를 강화하는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뢰 지수는 정부지원금의 사회적 성과 감소 효과를 완화하는 조절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범 지수는 민간지원금의 사회적 성과 감소 효과를 완화하는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사회적 자본이 작용하는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 네트워크 지수는 민간지원금의 경제적 성과 증가 효과를 강화하는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뢰 지수 역시 민간지원금의 경제적 성과 증가 효과를 강화하는 조절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 지수는 정부지원금의 경제적 성과 증가 효과에는 강화 조절 효과가, 민간지원금의 경제적 성과 증가 효과에는 완화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두 가지 지표에서 사회적 성과 감소 효과를 완화하고 세가지 지표에서 경제적 성과 증가 효과를 강화하는 조절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있어 대체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적기업은 영세한 자본을 바탕으로 이윤 극대화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성과를 추구하고 있다. 이때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재정 지원 전략을 수립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역의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촉진하는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성장은 상생의 공동체 실현에 기여함으로써 또 다시 사회적 자본의 증대를 불러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을 넘어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기관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정책이 시행되는 행정 환경을 고려하여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넓은 관점에서의 정책이 함께 시행될 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회적기업 성장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및 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정부 및 민간지원금은 사회적 성과에는 부(-)의 영향을, 경제적 성과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 및 민간의 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양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현행 정부 및 지원금의 지원 방법과 체계는 경제적 성과만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성과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지원이 현재와 같이 경제적 성과만을 향상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적 성과까지 함께 증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성과 요인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기업 내부의 요인 혹은 재정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데 반해서, 본 연구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정부 및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의 상관관계에 조절 요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학술적, 실무적 의의가 있다. 사회적 자본은 지역

사회 내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박희봉 외 1, 2000) 지역적 배경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에서 간과되었던 지역이라는 맥락 및 배경 정보를 분석 요소에 포함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은 정부 및 민간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의 성과 사이에서 정(+) 또는 부(-)의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일한 정부 정책의 영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지역 내 환경 요소와의 정합성을 살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각 사회적기업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특성에 맞게 적절한 재정 지원을 하였을 때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효과적인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우선하였을 때 더욱 효율적인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이 가능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성장은 지역 내 사회적 자본 축적에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 성장의 선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이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더욱 넓은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할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공헌점이 있다.

셋째, 사회적 자본을 네트워크, 신뢰, 규범의 세 가지 지표로 분류하여 공식 통계청 자료를 통해 지역별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였다. 사회적 자본 개념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어왔다.(도수관·장덕희, 2017) 그러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지표에는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사회적 자본을 파악하기 위한 공인 국가 통계자료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연구는 지엽적인 조직 내 연구

나 소규모 지역 연구에 그치고 있다. 이에 통계청의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신뢰, 규범의 차원에서 측정 항목을 선별하고 최근의 지역별 사회적 자본을 직접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향후 사회적 자본을 측정할 타당한 지표를 개발하여 공식적인 통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핵심 지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독립요인과 조절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이론적 공헌도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사회적 성과는 취약계층 고용인원, 경제적 성과는 매출액이라는 단일 지표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사회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학술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단일 지표를 통해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다. 추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정교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의 자율경영공시에 기반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표본의 대표성이 저하되었다. 자율경영공시는 모든 사회적기업의 정보를 취합한 자료가 아니며 일부 기업의 자료이다. 이때 각 자료는 임의 추출된 것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라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이 낮다. 비록 최근의 자율경영공시 자료는 1,110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표본의 수가 증대되었지만, 향후 모든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료가 구축된다면 더욱 대표성을 확보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 2020년이라는 단일 시점에 그친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종단연구와 메타분석을 통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의 본 연구결과와 비교 검토한다면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Baker, W.(2000), Achieving Success Through Social Capital, San Francisco:Jossey-Bass Inc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ohn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pp.241~258.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 S95-S-120.

Francis, Fukuyama(1995), Trust :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_____(1999), The Great Disruption, New York: Free Press.

_____(2000), Social Capital and Civil Society, IMF Working Paper No. 00/74.

Inkpen, A. C. and E. W. K. Tsang. (2005). "Social capital, network, and knowledge transfe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30, No.1, pp.146-165.

OECD(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OECD.

Portes, Alejandro.(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Putnam, R. D.(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Spring 1993),

pp.35-42.

_____(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_____(1995).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강문실·양성국(2016).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자본이 기업성과 및 맥락수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 29(1), 151-167

강문실·김윤숙(2016).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 간의 조직몰입 조절효과, 상업교육연구, 30(3), 307-329.

강석민(2014). 정부지원이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적기업 연구, 7(2), 3-19.

고명일·양난주(2019). 재정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높이는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의 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1(3), 49-73.

곽선화(2009). 07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기업연구, 2(1), 37-65.

권상집・박은일・김희태(2013).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사회적기업연구, 6(2), 179-203.

권소일・이재희(2018).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이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업종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연구, 10(2), 197-230.

김기철·서병덕(2017). 사회적기업 특성과 CEO의 경영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평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14(2), 47-80.

김기현(2013).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조직유형 및 형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서울.

김동헌·김영재·이영찬(2006). “기업의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보라(2015).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금 의존성향이 재무적성과와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율경영공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김석호・이석형(2020).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기업에 미치는 영향 : 주관적 안녕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4(3), 300-311.

김성홍(2016). 기술혁신활동과 기업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대한 연구, 산업과 경영, 29(2), 27-46.

김숙연(2015). 사회적기업 가치가 사회적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50, 171-192.

김숙연・강수진 (2017). 사회적기업 성과와 정부지원금과의 관련성,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2), 1-19.

김숙연・김선구(2016). 사회적기업 특성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30(4), 55-73.

김순양(2008).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과 평가지표의 개발 및 적용. 지방정부연구, 12(1), 31-59.

김영규・김종일(2018).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19(6), 9-32.

김영욱・이지만・정승화・최영근(2012). 사회적기업의 파트너십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산업관계연구, 22(4), 65-92.

김우철(2014).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 형성 : 개인자료에 의한 미시적

접근, 응용경제, 16(1), 191-224.
김재홍・이재기(2012).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고용창출 효과 분석, 지방정부연구, 16(3), 135-163.
김재홍・이재기(2012).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분석, 한국행정논집, 24(4), 1037-1063.
김정원(2009).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 서울: 아르케.
김준환(2004). “사회적자본과 사회적기업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 제 5집.
김진경・한형서・최영근(2018). 사회적기업의 경영특성이 사회적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리뷰, 9(4), 63-83.
김형돈(2019). 정부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체계적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1(4), 23-47.
김형주・전인오(2017). 사회적기업가정신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5), 55-66.
김혜원(2009).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의 형성과 전망. 동향과 전망, 0(75), 74-108.
난린(2008). 「사회자본 : 사회자본 이론의 배경과 발전 과정, 연구의제 총정리」,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남궁근(2016). 행정조사방법론. 서울: 법문사.
노대명(2009). 한국 사회적기업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 시민과세계, (15), 128-149.
도수관(2021). 사회자본과 사회적기업가정신 그리고 배분적 형평성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한지방자치학회, 23(1), 1-38.
도수관・박경하(2014).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고용 창출간의 관

계 분석 :2007-2011년 인증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8(3), 499-524.

도수관·장덕희(2017). 지식정보사회에서 사회자본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관계 유형과 경제발전. 한국행정학보, 51(3), 93-125.

류호영・이장희・이상철(2020),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이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8(11), 149-157.

미우라 히로키・한주희(2013). 한국 사회생태계에서 정부-기업-시민섹터 간 융합적영역, 한국정치연구, 22(3), 138.

박길호・강찬희(2019), 중소기업의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2(2), 55-73.

박수경・장동현(2013). 한국 사회적기업의 지원체계 분석. 사회과학연구, 24(4), 83-104.

박은영(2018).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 활동과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현희・박은영(2017).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 활동과 사회적・경제적 성과의 관계: 지역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14(3), 61-87.

박현희・심동철(2017). 사회적기업의 지역관계와 조직역량이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매개효과. 한국정책학회추계학술대회, 15, 9.

박희봉・김명환(2000).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 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한 시도, 한국정치학회보, 34(4), 219-237.

반성식·김상표·유지현·장성희(2011). 사회적기업가정신, 조직문화 및 네트워크 활동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논집,

25(3), 49-82.
배현회・최유진(2021).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민간 지원의 효과: 재무 제표 보정 및 패널 데이터 분석, 한국행정연구, 30(3), 101-124.
송경재(2006). “한국의 지역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지방행정연구, 20(3), 133-164.
송태수(2012).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소고. 한국정책연구, 12(4), 289-304.
신철호・김병근(2019). 기술창업기업 성과 영향요인 연구 : 사회적자본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4(3), 121-152.
안장훈・김선근(2017). 기업가정신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자본과 지적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영과 정보연구, 36(2), 261-276.
엄형식(2008),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 유럽 경험과의 비교 및 시사점, 실업극복국민재단.
오종철(2020),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역 사회적 자본의 형성: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기업과 혁신연구, 43(2), 107-128.
원구환・이원경(2019).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생산성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29(3), 1-28.
유석춘・장미혜(2002).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사회발전연구, 8, .87-125.
이광우・권주형(2009). 사회적기업의 역량요인이 공익적 성과와 영리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23(1), 261-292.
이수창·정우열(2014). 사회적기업의 성과 결정요인 분석 : 사회적기업의 조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2), 127-147.
이승일(2017). 변혁적 리더십, 사내기업가정신, 성과의 관계 및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 :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경영학과 박

사학위논문
이영수・길현종 (2016).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고용창출 및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과 정보연구, 35(5), 123-146.
이영현・김안국・유한구・김미란(2007),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 서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용탁(2013), 사회적기업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자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기업연구, 6(2), 5-31.
이윤경(2009). 사회적 자본의 관계적 차원이 지식창출과정에 미치는 영향-공무원집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인재(2012). 사회적기업 생태계조사 보고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준희(2016).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4), 644-654.
임동균(2020). 사회적 자본 관련 국가통계 작성 현황과 필요통계 발굴 방향, 사회조사센터 KIPA 조사포럼, 33, 22-27.
임현진(2012). “변화하는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NGOs의 과제,” 발표문. 139.
장성희・반성식(2010). 사회적기업의 기업가 지향성과 시장 지향성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3(6), 3479-3496.
장원봉 (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 나눔의 집.
전현수・최균(2020). 사회적기업의 조직역량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 경제적 성과의 조절 효과 분석, 사회적기업연구, 13(3), 139-166.
정경헌(2021). 재정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정선희・조상미(2018). 하이브리드 요인이 사회적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연구, 11(3), 125-162.

정희수・조상미(2021), 한국 사회적기업의 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사회적기업연구, 14(1), 207-245.

조상미・권소일・김수정(2012). 조직요인은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사회복지학, 64(3), 29-50.

최영출(2004). 지역의 사회자본 측정지표 설정, 지방정부연구, 8(3), 119-144.

최종일・이기동・최성희(2012). 한국의 지역별 사회적 자본과 경제성과에 관한 연구, 韓日經商論集, 55, 83-113.

최지혜・이찬영(2019).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의 고용 창출 효과 : 사회적 일자리와 자체 고용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9(2), 87-120

최현옥(2018). 사회적기업의 특성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8(1), 1-25.

함창모・김학실・심준섭(2016). 지역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결정 요인. 한국지방행정학보, 13(1), 47-69.

홍영란・김태준・조영하・박희봉・양정호(2006).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전략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홍효석・김예경(2016).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재무와회계정보 저널, 16(1), 1-29.

황승미(2015). 사회자본이 사회적 경제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정윤・장용석(2017). 사회적기업 지원의 딜레마-정부보조금, 약인가 독인가. 한국정책학회보, 26(2), 225-257.

황춘환・조창현・최무현(2014).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요인 분석: 강원도지역을 중심으로. 창조와 혁신, 7(3), 81-110.

2021년도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

Abstract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government and private support on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

Social enterprises have emerged as an alternative to the capitalist system order and are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subject to solve social problems. Support and solidarity from the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ies are essential for social enterprises to make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ffect of government and private subsidies and social capital in the region on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in the reg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ubsidies and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ased on the 2020 self-management disclosure data of social enterprises and the 2018-2020 Statistics Korea data, the higher the government and private subsidies, the lower the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while the higher economic performanc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social capital generally has a moderating effect in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social and economic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ubsidies and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when government and private subsidies have a positive and nega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social capital within the region enhances the positive impact and alleviates the negative impact, thereby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Through this anla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first, in order for government and private support to support the continuous growth and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both aspects of social and economic performance must be considered. Second,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social enterprises, this study implies that consistency with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social capital within the region should be considered when implementing fostering policies. Third,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classifies social capital into three

indicators(network, trust, norm) and directly measured regional social capital by using official statistical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IM HAENI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 Social Enterprise, Social Performance, Economic Performance, Government Support, Private Support, Social Capital
Student Number : 2018-26016